

3조원대 '강원 교통 모세혈관' 뚫어라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 현장 실사 대상

노선	유형	사업비(억원)
춘천 동내~홍천 북방	2차로 개량	1,778
원주 신림~재천 불양	4차로 확장	1,620
원주 소초~횡성	6차로 확장	910
원주 문막~홍업	4차로 개량	887
원주 홍업~지정	4차로 신설	1,630
정선 임계~강릉 왕산	2차로 개량	786
강릉 강동상사동~홍제	4차로 신설	3,590
홍천 화촌 장평~장평	2차로 개량	516
영월 방절~문곡	2차로 개량	997
영월 주천~판문	2차로 개량	625
평창 노동~홍천 지운	2차로 개량	865
평창 진부~강릉 연곡	2차로 개량	2,364
평창 장평~용천	2차로 개량	654
철원 육단~시곡	2차로 개량	1,570
철원 근남~김화	2차로 개량	958
인제C~원통역	4차로 신설	7,354
인제 북면~고성 간성	2차로 개량	1,103
고성 간성~거진	2차로 개량	980

국토부·KDI 10개 시·군 18개 노선 현장실사 돌입 제5차 국도·국지도건설 5개년 계획 반영 여부 촉각 7,354억원대 인제IC~원통역 4차로 최대 관심사

속보=강원도 시·군 연결망이 획기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SOC사업이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6일 도청에서 춘천, 원주, 강릉, 홍천, 영월, 평창, 철원, 화천, 인제, 고성 등 10개 시·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열고 신설 국도 및 간선도로 개통을 위한 정부 현장 실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예비타당성 조사(분보 1월20일자 1면 보도)가 진행 중인 18개 노선이다.

이들 지역의 국도 신설이 추진될 경우 시·군 발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사 및 예타 결과에 초미의 관심이 쏠린다.

국토부는 이미 2018년 5월 국도·국지도 신설 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이번 실사 결과를 포함해

이르면 내달 초 용역 결과가 나온다.

용역과 현장 실사를 통해 예타를 통과한 노선은 하반기 발표 예정인 정부의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돼 사업 추진이 확정된다. 도내 대상 노선은 총 21개로 이중 사업비가 500억원 미만인 3개 노선은 현장 실사에서 제외됐다. 실사에서 제외된 노선은 별도의 타당성 검증을 거쳐게 된다.

예타 결과에 따라 도내 북부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교통망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최대 관심사는 역대 국도 사업 중 최대 규모의 서울양양고속도로 인제

IC부터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 원통역까지 28km 구간의 4차로 신설 사업이다. 총 사업비가 7,354억원에 달해 고속도로와 비슷한 수준이다.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의 활용 극대화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노선이다. 이 밖에도 지역별 숙원이자 생활권 도로라는 점에서 주민들의 관심이 높다.

강원도 관계자는 "이번 현장 실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국도·국지도 예타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지역마다 정부에 노선별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최기영기자 answer07@kwnews.co.kr

건설투자, 금융위기 당시 성장률 기여도 75%

“국난 극복 SOC 예산 내년 30兆 이상 돼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내년 SOC(사회기반시설) 예산을 30조원 이상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발 위기를 SOC 투자로 극복한 경험과 학습효과를 토대로 코로나19 위기도 과감하면서 선제적인 SOC

예산 확대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는 26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조속히 해소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내년 SOC 예산을 30조 이상 편성할 것을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SOC 예산(23조2000억원) 대비 3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 2009년 SOC 예산 증가폭(5조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건협이 SOC 예산 확대를 대폭 요구하고 나선 것은 건설투자의 경제성장 기여율이 다른 산업에 비해 훨씬 크기 때문이다. 지난 1998년 외환위기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건설투자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각각 70.2%, 75.3%를 기록하며 위기 극복에 효자노릇을 톡톡히 했다.

이번 코로나19로 건설투자가 최대 10조원 감소하고, 취업자 수가 11만명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SOC 예산 확대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게 건협의 판단이다.

건협은 올해 발생한 건설투자 감소분과 내년도 민간투자 축소를 감안해 내년 공공건설투자를 30조원 이상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로·철도 등 전통적인 SOC 투자와 함께 신규 투자가 필요한 SOC로 △혁신 성장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 △특별재난지역 공공투자 △재난대응 기반시설 구축 등을 제안했다.

디지털 인프라는 스마트 산업 육성과 노후지역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혁신성장 허브(HUB)’가 핵심이다.

혁신성장 허브는 창업공간과 업무지구를 확보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공간이

다. 예를 들어 경북 구미를 전기전자 거점으로 조성하고, 김천을 e-모빌리티 연계산단, 성주와 왜관을 각각 뿌리기업 중심 차량부품, 스마트물류 등의 단지로 만들어 연계하는 방식이다.

특별재난지역 공공투자는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대구·경북지역에 복합개발사업과 인프라 등을 대거 추진하는 것으로, 건협은 △동대구 고속버스터미널 부지 개발 △서대구 역세권 개발 △엑스코션 건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동서5축 고속도로 건설 △동서횡단철도 건설 △남북6축 고속도로 건설 등을 제시했다.

재난대응 기반시설로는 보건소 등 1차 지역의료기관, 이동형 병원 등을 서둘러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협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주요 경제기관들이 세계경제의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하고, 국내 경기 침체도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국내 경기 침체와 고용시장 위축의 빠른 해결을 위해 내년 SOC 예산을 30조원 이상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